

영상적 상상력 담아야 할 타이포그래피

김주성 | 명지전문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교수

타이포그래피는 기술의 차원을 넘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출판계 내부에서는 디지털 책과 아날로그 책의 대응, 서체 저작권 보호 문제가 남아 있다. 지금은 출판문화의 뿌리인 활자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타이포그래피의 미래는 질 좋은 활자의 개발과 활자의 바른 사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활자 포화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활자들은 마치 번식하듯 그 수와 시각적 현란함을 더해가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현상은 그 이전의 진전에 비하자면 양적 측면에서는 거의 폭발적인 수준에 이른다. 내용적으로는 학문과 문화부문을 포함한 사회조직 전체가 새로운 단계로 전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을 넘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그러나 새로운 단계로 전진하는 속도에 비해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균형 현상들도 매우 빈번하게 목격된다. 글로벌리즘을 표방한 문화적 패권주의에 대한 적응과 실패를 실감하게 한다. 첨단 정보화시대에 인기몰이에 실패한 듯 외면되고 있는 분야는 기초학문만이 아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서구 활자정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하다.

우리는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고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문자가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타이포그래피는 서구에서 도입된 남의 기술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분야의 전자 시스템에서 일그러진 활자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중고등학생의 상당수는 영문법에 비해 한글 철자법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런 우려를 단적으로 뒷받침한다.

영상매체를 포함해 인쇄매체의 모든 활자정보는 독자의 관심을 끌고 읽히기 위해 점점 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형식을 요구하고 있

고 이에 대응하는 독자의 패러다임마저 변하고 있다. 특히 인쇄매체 활자정보는 디지털 책에 대응하기 위한 아날로그적 장점, 즉 독자와 교감하는 책의 물성이 중요시되고 내용에서는 과거 일방적이고 계도적인 출판관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책 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디지털 책과 아날로그 책의 대응, 또는 사활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같은 진단은 온·오프라인의 출판문화가 활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문제는 디지털이 아니라 훨씬 더 뿌리에 있는 활자의 문제로 집약된다. 한글 문자는 우리 문화 가운데 가장 우수한 유산이며, 조상의 얼이 담긴 뿌리기 때문에 세계화를 내세운 정보산업사회에서 가장 우리다운 '색깔'을 선명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출판미술은 혼성적이며 다변적인 경향을 보인다. 다분히 서구적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는 이 흐름은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타이포그래피는 석판인쇄술에서 비롯된 용어로서 활자를 개발하고 다루는 기술을 의미하나 이제는 단순히 활자를 다루는 기술에서 벗어나 의도된 정보를 예술적·합리적으로 표현·전달하는, 활자를 중심으로 한 모든 조형활동을 일컫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활자의 이미지성 극대화해야

이와 관련해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발전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기대해볼 수 있다. 좋은

활자를 개발하는 것과 만들어진 활자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한글 활자폰트가 1990년대 이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 그 수를 확장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질적으로 우수한 폰트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우수하고 다양한 활자의 개발과 지속적인 정책보완이 필요하다.

좋은 활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적 자산에 대한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시급히 보호하지 않으면 복제에 따른 윤리의식 마비로 한글폰트의 새로운 개발이 위축될 것이다. 서체제작과 관련된 제작사들이 문제점을 상호교류하고, 정부 또는 출판업체와의 공동개발과 지원정책이 활성화될 때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두번째는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중심으로 '활자 바르게 다루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편집개념의 혁신적인 '뒤집기'가 필요하다. 내용의 목적성만 강조하는 조악한 활자와 독자의 참여를 무시한 '활자 다루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디지털 영상 시대의 정보는 이미지다. 이미지에 익숙한 독자의 심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자는 잘 다듬어지고 명료해야 한다. '활자성', 즉 활자의 형태성과 이미지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모든 타이포그래피는 움직임이 고려된다. 인쇄매체의 활자는 독자의 눈 움직임, 즉 좌측에서 우측으로, 다시 다음 행을 찾아 우측에서 좌측으로, 또 아래로 움직이는 눈의 동작을 따라 활자가 논리적·조직적으로 배열돼 있다. 지면에서 부단히 움직이고 활자가 보여주는 공간에 정적이듯 동적으로 부유하게 된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좀더 적극적인 시네마틱 컨셉, 즉 영상적 상상력에 의한 편집컨셉이 요구되며 이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타이포그래피다. 활자와 이미지가 서로 보완하고 결합되는 시네마틱 관계가 한글 타이포그래피 토양 위에서 꽃핀다면 우리 출판미술의 질적 경쟁력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명하게 부각되리라 믿는다. ●